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양 순 경 의 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제천시 부시장 김 항 섭
제 목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질문요지

- 한방엑스포 관련 사업 중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한방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계획은?
-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외국인 유치 전략은?

답변내용

-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방엑스포 공원 내 시설별 운영방안을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한방생명과학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엑스포행사 기간동안 한방도시 제천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주제로 한 중심 시설물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금년 예산은 총 2억 1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 우선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엑스포 전시물을 이전 하겠습니다.
지난해 엑스포 성공 개최 이후 확보한 해외 기증약재 100여종을 한방생명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 재전시하여 관람객에게 품질 높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방생명과학 및 발효식품 학술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약초 관련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한방생명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 녹색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4천만원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며 어린이들의 식생활 교육 및 체험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한방생명과학관 1층 가변전시실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국제발효박물관 운영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은 과거 발효식품의 유래와 효능을 통하여 발효 식품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현재 실생활에 응용되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들과 발효방법, 발효의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시설공간으로
- 5천만원을 투입하여 국제발효박물관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운영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은 국내에서 재배·생산 및 자생하는 한방약초와
외국의 약용허브식물이 자라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되겠으며,

- 본 시설물에서는 관람객 체험프로그램으로 인삼심기 및 한방
족욕과 반신욕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네 번째, 약초특산품판매장 운영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약초특산품판매장은 전국 3대 약령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제천의
대표 한약재인 황기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재만을 엄선하여 홍보·
판매하여 약초의 산업역량을 전국적으로 알렸으며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약초특산품판매장 관련 예산은 총 6천만원으로 안내판 3천만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비 3천만원이 되겠으며, 약초시장 안내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CJB 시장에 간다” 프로그램 방영을 비롯한 언론 홍보와 십전대보
지어가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자 합니다.

- 다섯 번째, 한방한우프라자 운영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한방 한우프라자는 제천단양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원
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고품질 우수 한우제품을 엄선하여
관람객에게 공급하도록 축협과 협의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식문화체험관 운영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문화체험관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립공사가 정상화 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공하여 본래의 식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공원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촉매제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곱 번째, 기타 시설물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상징조형물 이전 설치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엑스포 행사시 제1게이트 앞 광장에 설치되었던 조형물을 엑스포 공원 내 원형잔디광장의 중앙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 엑스포공원 공중화장실 건립은 2억원의 예산으로 엑스포공원 내 적정 장소에 화장실 1동을 건립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엑스포공원 종합안내판 설치 예산액은 8천만원으로 엑스포공원 주도로 입구에 관람객이 시설물에 관한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형 종합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한방엑스포 관련 사업 중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88 한방관광열차 유치입니다.

-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따른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고, 제천지역의 풍부한 한방관광자원을 활용한 기차여행객을 엑스포공원에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관람객을 목표로 (주)코레일관광개발측과 협의하여 금년 2. 16일 서울역에서 제천역까지 한방관광열차 운행 노선을 개설 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방관광열차 운행시기는 2011. 3. 19(토)일을 시작으로 격주 화·토요일에 운행하게 되며, 1회 평균 300명 정도씩 34회 운행으로 연간 10,200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러브투어도 엑스포공원을 경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벚꽃축제 및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는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문화기능 수행을 위한 청소년 학생 유치입니다.

- 한방생명과학관 등 시설물의 교육·문화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과 박달재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을 중점적 유치코자 2011. 3. 7일 엑스포공원 위탁
업체인 삼전에코와 청소년수련관 및 박달재수련원간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연간 13만명에 달하는
수련원생이 엑스포공원을 관람할 것으로 기대되며 협약 체결일인
3. 7일에는 이미 수원 소재 고등학생 450명과 3. 9일에는 인천
공항고등학교 학생 280명이 협약대로 다녀간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한방생명과학관을 중심으로 한
한방엑스포공원을 방문토록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로 관내 및
인근 지자체의 청소년시설 수련원생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엑스포공원으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한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과 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 엑스포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가미한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약초허브전시판매장 1층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인삼심기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자는 총 2만명을 목표로 예산을 감안하여 매주 화·토요일에 1일 250명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한방족욕 및 반신욕 체험프로그램입니다.

- 한방엑스포행사시 한방족욕이 관람객의 인기가 높았던 점에 착안해 약초허브전시판매장 2층 유희공간에 족욕과 반신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피로회복과 발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운영규모는 동시 50명 체험이 가능토록 족욕기 40대, 반신욕기 10대를 비치하여 약 15분간씩 체험을 실시하게 되며, 체험비는 참여업체의 전기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각각 1,000원과 2,000원으로 위탁업체와 참여업체간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상체질진단 체험프로그램입니다.

- 본 프로그램 또한 엑스포행사 시 인기가 많았던 바 관람객의 사상체질진단(음성, 안면, 설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그 외에 약초시장내에 무료한방차, 발효박물관 내 토종선인장 발효음료 시음코너를 마련하여 관람객에게 한방관련 식품을 가공한 음료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한방비누만들기 등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엑스포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방바이오박람회는 기존의 한방건강축제를 바탕으로 축제성 프로그램은 줄이고 한방산업화에 포커스를 맞춘 산업박람회로 변경하여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서, 한방엑스포공원에 조성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규모의 시설 배치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람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타기관의 우수 박람회 및 한방 축제 등을 견학하여 우리시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 엑스포공원의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 판매장, 약초특산품판매장 등을 주제관으로 활용하고, 몇 개의 산업관과 한방 및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한방·의료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개최하는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재방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또한 박람회를

- 타지역 생산품과 비교를 통한 지역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한방의 산업화로 제천경제의 활성화에 주력을 두고 개최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학술, 체육, 세미나 등의 각종 행사를 박람회 개최 기간중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방문객 유치 및 박람회 개최의 최대 효과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외국인 유치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관람객 유치의 주요 타깃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효과적인 유치를 위하여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모객, 수도권 거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방법으로서

첫째, (주)남이섬 및 상수허브랜드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대만, 중국 자매결연 도시와 관계 유지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셋째, 전국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엑스포공원을 적극 방문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넷째, 외국근로자가 많은 안산지역 지자체도 방문해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방엑스포공원 알리기 및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방건강도시,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김 기 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직 위 행정복지국장 성 명 윤 종 섭
제 목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의병정신 고양(高揚) 방안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의 의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천시의 방안은? ○ 제천의병의 치열한 전투지인 ‘남산 격전지’를 의병유적으로 조성할 의향은? ○ ‘자양영당’을 전국 의병의 성지로 만들 의향은? 	
<p><u>답변내용</u></p> <p>행정복지국장 윤종섭입니다.</p> <p>평소 지역문화의 계승과 창달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 지원과 관심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지역 정신문화의 뿌리인 제천의병과 의병정신 계승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p>□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체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정체성인 「의병의 고장, 제천」의 뿌리인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실현과 그동안 노력한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 즉 제천의병만이 간직한 특성을
현자료중심으로 종합정리해서 보면

① 구한말 1895년 초기의병의 창 의지로서 나라가 풍전등화
의 위난일 때 오직 구국일념으로 해방맞이까지 거의 50년
동안 끊임없는 의병활동 전개

※1895년 유인석장군을 중심으로 한 을미의병의 창 의지
(유인석의 격고팔도열읍)로서 1907년 정미의병을 거쳐
1945년 해방 상해임시정부 등 대한민국건국의 초석이 됨
(초기 광복군 총사령관 황학수가 제천 출신임)

②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전국의병의 집결지로서 전국의병
봉기의 초석이 됨

※최소한 제천에 제천과 인근지역의병, 경기도의병, 강원
도의병, 경상도의병이 합류하여 전국의병운동성격 창 의

③ 1907년 정미의병 당시 제천이 초토화된 역사적 아픔이
제천이 역사 속에 가장 우뚝서게 한 역사정신으로 지역정
체성과 지역이미지로 계승된 점

※영국 데일리 메일지의 기자 맥켄지가 쓴 「조선의 비극」
이란 책자에서 제천의병의 활동현장이 소개됨(중앙공원에
서 신월동쪽으로 촬영한 사진 등 당시 상황 기록)

○ 다음은 우리시가 「의병의 고장, 제천」을 대내외적인 지역이미지와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역점·수행하고 있는 큰줄기를 살펴보면

- ① 의병창의 100주년을 시점으로 매년 제천의병제 개최(의병제 정례화)
- ② 제천의병의 중심인 자양영당 성역화 작업 계속(2001년개관)
- ③ 제천의병사 큰줄기 작업 계속(이구영의 제천의병사적, 구완회의 한말의 제천의병 등 발간)
- ④ 시립도서관내 제천의병특화도서관 신축 개관(2006년 개관)
- ⑤ 제천의병흔적에 대한 각종 정비 보수작업 계속(박약재, 순국선열묘역 등)
- ⑥ 시정 각종 홍보 및 영상물에 지속적으로 「의병의 고장, 제천」을 집중 부각(대내외 의병 브랜드 홍보)

○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지역역사성을 지역정체성과 지역발전틀 및 제천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현 우리의 책무며 당면과제로 인식, 제천의병 지역브랜드화 작업에 온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 그러면 질문하신 ‘제일의 의병도시’ 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시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와 전국의병의 창의지로서 확실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초 제천의병사인 이구영선생의 쓴 제천의병사적에서 ‘사적’을 「史蹟」이 아닌 「事蹟」으로 적고 있습니다.

- 제천의병사의 진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천의병에 관해 매년 각종 기록물들을 발간하여 역사적 가치를 계승·보존하고 있습니다.

- 의병사료 영인본을 지속 발간하고 있으며, 2008년 어린이를 위한 ‘만화로 보는 제천의병사’, 2010년 ‘국역 의암집’ 발간, 그리고 제천의병도서관을 중심으로 제천의병 자료, 인물로 보는 제천의병 등 각종 귀한 자료들을 끊임없이 발굴, 객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여 「史蹟」으로 정리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제천의병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당시 전국의 병봉기의 창의지로서 대내외 널리 홍보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의병을 일으킬 때 ‘팔도에 고하노라’는 격문을 통하여 제천에서 의병 봉기를 전국에 알린바 있습니다.

-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병전시관 등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의병유적지를 정리하여 향후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의병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병전시관을 중심으로 관내·외 학생들이 제천을 의병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전국의병의 모태지로서 중앙정부차원의 성역화작업이 지속되도록 적극 대책하겠습니다.

○ 넷째, 「의병의고장, 제천」이란 지역브랜드가치를 업시키는 작업이 시정의 중심축이 되어 다양한 계승구체화작업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 제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제천의병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지역내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무엇보다 의병의 후손으로서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이 있어야만 제천이 명실상부한 의병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제천의병의 치열한 전투지인 ‘남산 격전지’를 의병 유적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천은 어느 곳 하나 당시 의병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이 선조의 피가 묻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전 제천은 도심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지도에서 사라질 만큼 초토화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아픔 속에 남산 격전지는 당시 안승우 장군을 필두로 홍사구 등 수많은 의병들의 혼이 깃든 역사적 장소입니다.

○ 남산은 화산동 191-84(2,849m², 도교육감소유)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숲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남산전투는 제천의병의 전기의병(을미의병)이 현 화산동 소재 남산에서 치른 중요한 전투로, 1896년 5월 25일 의병을 해산시키려는 관군이 금성을 거쳐 시내지역인 고장숲(현재의 굴다리밖)까지 들어와 호좌의진(제천의병)이 이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격전지가 바로 남산입니다. 결국 남산전투에서 제천의병들을 독려하던 중군장 안승우와 그의 결을 떠나지 않았던 종사 홍사구가 순국한 장소입니다.

○ 또한, 이런 역사적 장소인 남산은 칠성봉 중 제7봉(정봉산)으로서 그 자연성을 지켜오다가 우리시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관리해오면서 2007년에 도시숲 조성 사업비 4억(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관목 4,900여본을 식재하였고 목재 데크, 휴게 의자, 목재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숲 조성이후 남산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도심 속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2 참조>

앞으로 의병사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차원에서 우리지역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남산의 중요성에 걸맞게 역사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다만, 의병사적지로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 공원, 교육지원청 등 입지지역을 포함하여 총 11,497m²(도교육감소유)를 전체 사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성역화하는 구체적 작업은 별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자양영당을 전국 의병의 성지로 만들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6년 지방기념물 제 37호로 지정된 자양영당은 의암 유인석 선생의 구국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로, 중앙정부의 지원 협조하에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으로 주변일대를 재정비하여 제천의병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은 자양영당과 자양서사, 전시관 등 총 9개의 시설을 갖춘 현충시설로 52억(국비 19억, 도비 17억, 시비 16억)의 사업비로 조성, 2001년 개관하였습니다.

○ 의병전시관을 전국 의병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도로망 확장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0년 1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의병전시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0억원의 사업비로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또한 평소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여 금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 6천(도비 8천, 시비 8천)을 확보,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매입하는 토지는 2012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형 차량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매입 토지의 일부는 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광장 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의병전시관의 관리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별도의 관리사가 없어 성재거택의 사랑채를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병전시관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시설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자 건립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0년 국가보훈처에서 전국의 35개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천의병전시관은 6위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구축과 함께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천의병전시관이 진정한 의병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제천의병이 전국의병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최초봉기의 중심이 되어온 자양영당이 명실상부한 구한말의병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평가 작업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앙차원의 전국의병의 성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의병정신 고양 방안’에 대한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 위 원 회)
답 변 자	직 위 행정복지국장 성 명 윤종섭
제 목	제천시 축제 운영 및 평가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 축제 운영 및 평가현황 ○ 제천시 축제발전계획 	
<p><u>답변내용</u></p> <p><input type="checkbox"/> 행정복지국장 윤종섭입니다</p> <p>평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축제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질문해주신 김꽃임 의원님께 감사와 함께 축제 운영 및 평가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먼저, 2011년도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연간 축제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 기본적으로 축제는 <①> 지역의 특성을 기본으로 특화된 개최 명분이 분명해야하며 <②> 지역의 브랜드로써 대내외 널리 확산시킬 수 있고 <③> 특히 지역경제와 주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화합과 결집력으로 즉 지역 거버넌스를 축제라는 큰 매개체를 통해 지역동력으로 에너지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되오며</p> <p>○ 우리시가 2011년도 현재 계획 확정하여 예산확보 집행중인 지역축제(별첨1)를 살펴보면</p>	

○ 첫째 「봄 행사인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 매년 4월 중순경 청풍면 문화마을과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행사는 제15회로써 2011. 4. 15 ~ 17(3일간) 개최합니다
- 본 행사는 통상 3일정도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 체험, 전시, 경연행사 및 먹거리 장터 등으로 구성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 예산은 62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는 지역 축제로 예산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 경제성이 좋은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매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벚꽃개화 시기에 축제일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축제일정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통행량이 주말에 집중되어 간혹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둘째 여름축제로 「제천국제음악 영화제」입니다

- 본 영화제의 기본 타킷은 <①>음악과 영화라는 두가지 장르를 융합한 유일한 영화제로서 <②>동해안 중심 수도권 하계 휴가철 젊은 층을 겨냥해 제천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를 기하고자 우리시가 정책으로 기획한 명실상부한 지역 브랜드 축제입니다
- 청풍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매년 8월 청풍호반 및 TTC영화관, 의림지 등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제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 아시아 최초, 국내유일의 음악 영화제라는 성격을 특화시켜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국제음악영화제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호숫가에서 개최되는 하계휴양영화제라는 컨셉으로 개최되는 영화제는 세계적 브랜드화로 제천시민의 자긍심 고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충북지역의 대표영상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셋째 가을축제인 「제천 의병제」는 우리시가 제천의병창의 100주년인 1995년을 시작으로 올해 창설116주년을 맞이하는 의병의 고장 제천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입니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제천위주의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특성화된 축제로 진행하여왔으나
- 올해부터는 시민화합 행사를 다시 부활시켜 시민의 화합과 시민정신 함양 행사를 병행 개최함과 동시 14만 시민이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 넷째 겨울축제인 「의림지 동계민속대전」입니다

- 2009년 중앙정부의 축제 통·폐합 및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하였으나 의림지는 현존하는 최고의 수리시설로써 명문화를 하여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 의림지의 명물인 공어낚시 및 얼음썰매 등 민속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겨울철 놀이문화 제공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 다만, 우리시가 앞에서 답변 드린 사계절 중심 지역축제와는 별개로 계획되어 진행된 축제성 행사를 보면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천한방 건강축제를 개최 하여 왔으나 『2010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개최 국가브랜드인 한방을 제천시가 선점 제천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큰 계기로 삼았으며 금년부터는 한방바이오 박람회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의림지 비행장에서 2008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한 자동차 마니아 페스티벌은 시보조금 2억원과 대행사 자부담3억2백만원으로 기획된 축제도 있었습니다
- 국제음악 영화제 기간중에 낮에는 행사프로그램이 없어 영화 마니아를 위한 별개의 축제를 기획한 청풍 황토 아일랜드 축제를 청풍면 대류리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개최 한 바도 있습니다.

□ 다음은 축제 용역 평가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축제의 내용, 투자대비 효과, 지역경제 효과 등 영향평가 분석 기능이라서 평가 시스템은 필수라고 사료 됩니다.

○ 따라서 금년에는 4계절 축제중 규모가 큰 <①>여름축제인 『국제음악영화제』 <②>가을축제인 『제천 의병제』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분석 차원에서 아웃소싱 평가를 시행 하겠으며, 나머지 2개 축제는 지자체평가를 시행 하겠습니다

○ 용역 평가한 축제 3건에 대하여 용역 결과를 사례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 먼저 『2010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경우 참여한 방문객은 12만 4천명이며 영화제 개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생산과급 효과는 75억 정도로 나타났으며

- 『2008 제천한방건강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은 21만명이며 경제적 생산과급효과는 57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2008 자동차마니아페스티벌』에 참여한 방문객은 20만 명이며 44억6천만원의 경제과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축제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찌기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계획을 하던 그 계획이 목표한 방향을 달리하면 그 속도는 무의미 하다』라고 했습니다

○ 그만큼 목표한 일에 대한 방향성의 소중함을 강조한 말을 이해합니다. 우리시가 계획한 지역 축제가 축제의 기본성격과 취지에 몰입하도록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서 적극 지원 되도록 세심하게 실천하는 정성부터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앞으로 모든 축제는 전략적 목표를 뚜렷하게 명분화 하고 그 속에서 지역경제 실리를 극대화 토록 총론과 각론이 함께 융합하는 축제로 거듭 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을 적극 고려 하겠습니다

① 우선 축제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천시만이 갖추고 있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있는 4계절 축제를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축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조직을 체계화, 전문화시켜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장기적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 하겠습니다

② 축제의 목적성과 주제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③ 적절한 예산확보와 재원구조의 다양화 그리고 효율성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을 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를 시 보조금에 머물지 말고 국·도비 및 후원업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④ 축제는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소외받지 않는 행사를 만들어 14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⑤ 축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회성 방문형이 아닌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에 지역명소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에서 촬영되어 방영되었던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과 청풍호 주변 관광지를 패키지화 하여 축제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 축제가 성장과 동력을 갖고 계절별 지역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고 지역 주민의 연대의식 함양을 기 할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최 경 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경제과장 함영득
제 목	녹색성장을 위한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종섭의 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을 위한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안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과 보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동참 및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구환경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한 인류 문명활동의 역기능으로 산성비 문제, 오존층 파괴, 지구의 온실효과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 엘니뇨현상, 사막화, 해양·대기오염의 확대등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가 국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환경문제로 부각되었고
-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국가간 책임 원칙에 합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97년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총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 38개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의무감축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하였으며

- 한국은 제3차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 발족, 녹색성장5개년계획, 2030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 2013년까지 1,000여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배출 전망치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위해 우리시에서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 천연가스(LNG)조기도입 및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에너지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등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 신에너지(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등 11개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즉, 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녹색에너지보급을 통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 지방보급사업
- 일반보급사업
- 보급용자지원사업
- 설치의무화사업
- 발전차액지원사업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890억원, 지방 및 일반보급사업 900억원등 총 6,858억원입니다.

○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일반 단독주택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 에너지원이 있으며,
- 지방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 일반보급사업은 전문기업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보급용자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기업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저리용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 발전차액 지원사업은 일반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구매해주는 사업입니다.

○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50%, 지방보급사업 50%, 일반보급사업 50%입니다.
- 또한 발전차액사업의 전력구매비용은 용량 및 적용기간별,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며 400원 ~ 600원대/kw입니다.

□ 다음은 그동안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사업에 10,53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 금년도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하수처리장 3차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자원관리센터 소각폐열발전시스템, 덕산면 신현마을 태양광빌리지 및 개별주택 태양

광발전시설 보급등으로 사업비는 3,177백만원이며 현재 설계 및 계약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용 량	비고
	합 계		10,532		
태양열	소 계		1,031		
	경노당태양열급탕시설	2005.12	20	24m'	
	청소년수련관태양열급탕시설	'08.1~8	335	475m'	
	제천영육아원태양열	'09.12~'10.7	130	158m'	
	그린빌리지조성(송학시곡)	'06.1~12	546	59가구	
태양광	소 계		5,388		
	시민주차타워태양광	'06.10~'07.2	761	90kw	
	하수처리장태양광	'07.9~'09.3	1,779	200kw	1단계 100kw 2단계 100kw
	시청사태양광	'10.1~8	367	50kw	
	신백두학동 태양광	'10.1~8	394	50kw	
	강저휴먼시아1단지태양광	'09	494	88.8kw	LH공사
	강저휴먼시아3단지태양광	'10	493	110.4kw	LH공사
	그린빌리지조성(수산상·하천)	'10.1~6	433	27가구	
	그린홈100만호(태양광주택)	'09.1~'10.12	667	86가구	
지열	소 계		1,413		
	한방생명과학관 지열냉난방	'09.1~'10.6	598	586kw	
	약초허브전시장 지열냉난방	'10.1~8	428	350kw	
	국제발효박물관 지열냉난방	'10.1~8	387	315kw	
폐기물	소 계		2,700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열병합	'06.1~12	2,200	280kw	
	자원관리센터소각폐열시스템	'06.3~'08.5	500	-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내역〉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용량
	계	국비	시비	
계	3,177	1,813	1,364	756kw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	718	359	359	100kw
자원관리센터소각폐열 발전시스템	1,350	675	675	260kw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태양광주택)	1,109	779	330	396kw (132가구)

□ 현재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사업 효과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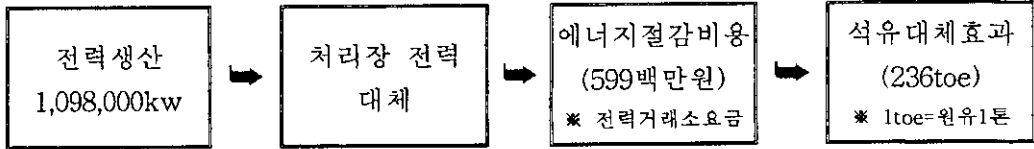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시설용량 200kw/h로서 234,500kw, 재생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863,400kw등 연간 총 1,098,0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하수처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 또한 시민주차타워도 107,0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주차타워 뿐만아니라 주변건물인 여성도서관, 인성동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등 공공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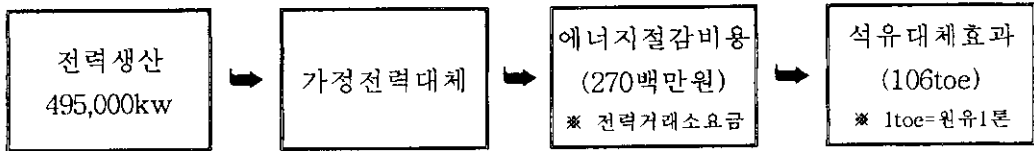
○ 태양광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발전시설 113가구를 설치하여 연간 495,0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5만원정도의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67,800천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례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의 효과를 살펴보면,

▪ 사례1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



▪ 사례2 (태양광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발전시설)



□ 다음은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향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중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산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중점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강저단지 아파트 건설초기에서부터 LH 공사에 요구하여 현재 강저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88.8kw, 3단지 110.4kw가 설치되어 공용전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분양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전문시공업체와 계약후 전문시공업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일반주택 태양광설치와 동일하게 설치비의 50%가 지원됩니다.

- 그러나 설치장소가 공동주택 옥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설치 용량의 한계가 있으며 세대별로 생산된 전력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공동주택내 엘리베이터등 공용 전기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부담 투자대비 효과가 낮아 기존 공동주택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일부공사로 포함되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76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습니다.
- 이러한점을 감안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보다는 향후 공동주택 신축허가 신청의 경우 태양광설비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 다음은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향후 보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중 하나인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정부보조금외에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효과 및 에너지비용절감, 하반기 전기요금인상계획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매년 100가구정도의 사업물량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대하여 년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공건물에 대해 정부 예산확보 활동을 통하여 보급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

시청사, 보건복지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시립도서관, 고암모산동주민센터, 수도사업소, 교동주민센터, 청전주차타워, 88체육관실내수영장 태양열급탕시설 등

- 무한 공급될 것 같던 화석에너지지원이 이제 고갈 직면에 처해있으며 최근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지난 2.27일 정부에서는 에너지위기「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너지사용의제한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8월에 「2030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총 11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2%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여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청정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유가시대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절감 뿐만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1]

제천시 축제현황

행 사 명	행사기간	장 소	예 산 액	주 관	비 고
청풍호 벚꽃축제	4월(3일)	청풍면 일원	62백만원	문화예술위원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8월(6일)	청풍호반 시내, 의림지	1,200백만원	(사)국제음악영화제	
제천의병제	10월(2일)	자양영당 등	200백만원	문화예술위원회	
의림지동계민속대전	1월(3일)	의림지	150백만원	문화예술위원회	'09년 폐지후 부활
한방건강축제	10월(7일)	제천비행장	500백만원	축제추진위원회	바이오박람회로 변경
자동차마니아페스티벌	2008년 5월(3일)	제천비행장	200백만원	축제추진위원회	'08년 1회개최후 폐지
청풍황토아일랜드축제	'07, '08년 8월(6일)	청풍 대류리	50백만원	축제추진위원회	축제구조정에따라 폐지